

차단 방역 없는 예방접종 정책 있을 수 없다

- 홍보팀 -



2005년 가금질병연구회 학술세미나가 지난 10월 12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렸다. 80여명의 양계수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병, 마이코플라스마병을 주제로 토론이 있었다.

권용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사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근본적인 조류인플루엔자 관리방법으로 백신,

차단방역, 지속적인 농가교육, 살처분 등이 있다고 밝히면서 국내 상존하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1)에 대한 방역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국내 방역대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 백신정책은 지난 1993년 처음으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H5N2)가 발생하여 1994년 전국적으로 확산된 후 같은 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

병하여 1995년부터 백신정책을 도입했지만 방역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멕시코의 사례를 교훈 삼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용국 박사

또한 권 박사는 수의학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Elsevier가 발간하는 잡지 '백신' 2004년 6월 호 (22권) 4137~4138P을 인용, 폭넓은 질병방제전략 차원의 한 부분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조류인플루엔자 박멸은 요원하며, 부수적인 공중 보건학적 위험 또한 제거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정책 도입은 예방접종에 따른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양계 농가의 선택에 따라 가장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며, 만약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정부 정책당국과 연구기관은 하나의 백신 타입을 고수하고, 수입백신을 사용하지 않으며, 백신정책은 광범위한 방역 정책의 하나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권 박사는 우리나라의 H9N2 백신은 내년쯤 시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백신 사용은 전적으로 경제·정책적인 면에서 많은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의사들은 최근 국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폐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비단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폐사율이 높기 보다는 세균성 질병과 같은 복합 질병에 감염되어 폐사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농장에서는 세균성 질병 치료를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윤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사가 최근 유행



모인필 박사(좌)와 크래븐박사(우)

뉴캐슬병의 유전학적특성 및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강독형 백신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이윤정 박사는 육계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는 뉴캐슬병은 강독형 백신 접종으로 완화시키는 있지만 산란계의 산란율 저하 증상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윤정 박사

그러나 강독형 뉴캐슬병 백신은 선진국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양계농가에 접종하기 까지 장기적인 실험을 통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초청인사로 미국 조지아 주립대 Klevan 교수가 모인필 충북대학교 통역에 의해 "마이코플라즈마병 예방법 및 최근 연구동향"을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이 있었다. Klevan 교수는 세계적으로 산란계의 마이코플라즈마병 감염율이 높은 상태인데 미국의 산란계 고주령의 감염율은 90%에 이르고 있지만 병원성이 약한데 반해 멕시코, 아르헨티나, 유럽은 병원성이 강하여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이코플라즈마병 치료제로는 사독과 생독 백신이 있고, 생독백신으로는 F Strain, Strain 6/85, Strain ts -11이 있고, 최근 신제품으로 Pox-MG, K5054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양계**